

특 집 편 집 기



표 삼 수

삼성전자(주)
컴퓨터시스템사업부

멀티미디어는 문자, 영상, 소리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유기적으로 기록, 전송 및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가 오기 이전에는 정보는 문자나 영상, 소리 등의 단일 매체에 의해, 어날로그 혹은 디지털 신호로써 개별적으로 기록, 전송, 표현되어 왔다. 디지털 컴퓨터의 지속적인 발달로 문자, 소리, 영상 등 종래에 어날로그 매체들이 속속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어 단일 정보가 멀티미디어 복합 매체로 기록 및 표현이 가능하게 되면서 멀티미디어 시대가 태동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격적이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기업매체의 성능과 용량의 획기적인 개선외에도 통신 속도 및 용량이 급진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단일 정보의 멀티미디어화는 종래의 방법에 비해 수십배 혹은 수백배의 기억용량이 필요하며 이를 단위시간에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 양도 똑같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개인용 컴퓨터, 게임기, CD-ROM 등을 중심으로 한 단말기형태의 멀티미디어 기기는 기억장치의 용량 및 속도의 증대와 또 이 정보를 처리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올 VOD, 원격의료진단 등의 멀티미디어 산업은 통신기술의 발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199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과 CATV 서비스, VOD시범서비스 등은 이러한 희망을 더욱 밝게 해 주고 있다.

본 특집에서는 21세기를 앞 둔 시점에서 멀티미디어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멀티미디어 기술과 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정보고속도로 산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도래할 멀티미디어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보며, 아울러 이의 근간이 될 멀티미디어 핵심기술을 소개하는 난으로 꾸며 보았다. 특집의 주제는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기술”이나 컴퓨터기술은 멀티미디어를 위한 선행기술이므로 비디오서버 사례에서 언급한 외에는 특별히 다루지 않았으며 멀티미디어 산업과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위주로 다루었다. 멀티미디어 핵심기술을 다룬 4편의 기술해설 외에도 “정보고속도로와 멀티미디어”는 정보고속도로의 구축과 함께 가능하게 될 미래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산업을 조망하였으며, 두 편의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대한 기술해설에서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멀티미디어 단말기들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VDT 서비스 제공을 위한 RAIS 비디오서버 구축사례”는 한국통신(주)가 향후 본격적인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소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미래의 멀티미디어 산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파악할 수 있기 바란다.

끝으로 바쁜 시간중에도 옥고를 보내주신 여러 저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본 특집이 멀티미디어 기술과 산업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